

## 억양의 시각화를 통한 프랑스어의 억양학습

### Apprentissage de l'intonation du français à l'aide de visualisateurs de mélodie

부산외국어대학교 불어과  
이 정 원

#### 들어가기

외국어학습의 성공여부는 학습자의 강한 동기유발에 달렸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영어학습의 강세에 밀려 프랑스어를 포함한 제2 외국어 학습 열의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각 대학에 프랑스어를 전공하는 학과가 존재하는 한, 프랑스어 교육은 계속되어질 것이나, 과거와는 달리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의 기초를 배우고 대학의 프랑스어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현재의 대학입시 제도가 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적성여부와 상관없이 수능성적 결과 점수에 따라 학과를 정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프랑스어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결여된 상태에서 전공 언어학습을 시작하게 된다. 프랑스어를 가르치면서 현장에서 가장 고심하게 되는 문제는 첫째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프랑스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 둘째로는 대학 4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어떻게 하면 정확한 프랑스어를 학습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면서 가장 중점을 두게 되는 부분이 운율에 대한 학습이다. 특히 프랑스어는 음절리듬 언어로써, 음절에 대한 개념이해와 아울러 문장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다양한 패턴의 억양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억양습득은 의사소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학습 요인이다.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억양의 차이에 의해서 동일한 문장의 의미구별을 할 수 있는 바, 억양의 변별성을 정확하게 지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억양을 제대로 묘사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발화 실제상황의 미묘한 억양차이를 이론적으로 기술하는 것도 매우 까다롭다.

본 연구에서는 억양곡선의 시각화를 통한 억양학습 지도를 중심으로 프랑스어의 억양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확한 억양학습 지도 방법을 모색하여 실제로 프랑스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다.

#### 억양의 시각화 작업 및 효과

억양곡선의 시각화 작업은 이미 1960년대부터 시도되었던 억양의 묘사 방법이다. 초기에는 난청인의 언어재활을 목적으로 억양곡선의 시각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1960년에 Anderson이 가장 먼저 억양의 시각화 작업을 통해 난청인의 언어재활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시도는 점차 외국어학습에도 도입이 되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억양의 시각화를 토대로 한 억양학습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1. 관련 연구의 역사적 배경

본 장에서는 Lepetit(1992)에 수록된 관련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여 억양의 시각화 작업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억양학습 지도 측면에서 1964년 Vardanian이 처음으로 억양의 시각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Vardanian은 억양의 시각적 효과가 학습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언어학습을 저해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대해 Hengstenberg(1980)는 훗날 Vardanian의 결론에 대해 그의 연구에 방법론적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1965년 Lane과 Buiten은 SAID(Speech Auto Instructional Device)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이 기계를 통해 한정된 문장의 억양, 소리의 지속 및 세기 등을 측정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컴퓨터 분석을 통해 모델화된 문장의 억양과 학습자의 모방된 억양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SAID 시스템 측정기준의 신빙성에 대해 de Bot(1980)가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Alberton과 Fourcin(1975) 역시 런던대학에서 난청인의 언어재활을 위한 억양의 시각화 기기를 개발하여 선보였으며, 이들은 말소리를 측정하기 위해 래팅고그래프를 이용하였는데 문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학습자 곁에 지도자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몇몇 선형적 연구자들에 이어 Martin(1973)은 억양분석기를 고안하여 여러 가지 매체변수의 기능을 고려하면서 억양을 시각화 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이는 억양학습 지도와 관련된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어 주었다. Leon과 Martin(1971, 1972), Martin(1973)은 대화가 가능한 억양학습 기기를 선보였다. Toronto 대학의 James(1972)는 이들이 만든 기계를 토대로 억양학습 지도를 경험한 결과 연구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James(1977)는 억양의 시각화를 통한 억양학습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발표하였다. 한편 1980년대에 이르러 Hengstenberg(1980)도 역시 억양의 시각화를 통한 외국어 학습자의 억양교육이 효과적임을 경험적 연구결과를 통해 발표하였다. de Bot(1973)의 경우에도 외국어의 억양학습에 억양의 시각화 작업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de Bot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어의 억양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했던 학습자를 대상으로 경험적 실습을 한 결과, 억양의 시각화를 토대로 외국어를 학습한 학생들이 청각적 학습만을 토대로 공부한 학생들에 비해 훨씬 효과적인 학습결과를 보였다고 했다. 반면 de Bot(1980)는 이 분야의 관련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특히 학생들의 외국어학습 재생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Weltens와 de Bot(1984)에서는 억양의 시각화를 통해 억양학습을 한 학생들이 더욱 효과적인 외국어학습 결과를 얻게 되었으며 외국어학습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억양의 시각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음성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프랑스어의 억양학습 결과의 효율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2. 음성분석기를 통한 억양의 시각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음성언어의 재활 측면에서 음성분석기를 사용한 것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더욱 많은 종류의 음성분석기가 개발되어 음성학이나 음운론 측면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이론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음성분석 결과로 증명하는 작업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음성분석기를 외국어학습에 사용하려는 시도는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현재 시중에는 다양한 음성분석기가 판매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 배포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여러 가지의 음성분석기 중 본 연구에서 억양의 시각화 작업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PitchWorks이다. PitchWorks는 미국 UCLA에서 ToBI labelling을 목적으로 고안된 PC용 음성분석 프로그램이다. PitchWorks를 선택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특히 피치(억양)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Windows용으로 써 사용이 간편하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여 구입이 용이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피치를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이점과 함께 Windows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프로그램의 작동을 쉽게 익힐 수 있다. PitchWorks 사용법에 대한 내용은 고도홍·정옥란 외(2001)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자연스런 발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프랑스어 문장 몇 개를 데이터로 선택하여 원어민이 발화한 내용을 PitchWorks를 통해 분석한 후, 억양의 시각적 기본모델을 만들어 BMP 파일로 저장하였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기본모델의 녹음을 들려주는 동시에 BMP 파일을 토대로 프랑스어 억양을 모방하게 하는 실습을 하였다. 강의실에서 여러 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억양학습 지도를 할 경우에는 대형 스크린에 BMP 파일을 띄운 후, 음성을 청취하면서 인위적으로 억양곡선의 높낮이를 따라 실습케 하였다. 그 결과 앞서도 지적했듯이 청취력만을 토대로 억양학습을 했을 때보다 학생들이 더욱 쉽게 프랑스어 억양을 익힐 수 있었으며 인위적이기는 하지만 원어민에 가깝게 억양 재생이 가능하였다. 결론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실습한 결과 억양의 시각화가 외국어 학습, 특히 억양 학습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 마 무 리

문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학습한 프랑스어의 억양을 학습자들이 실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재생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위적으로 설정된 기본모델에서 벗어나 실제 발화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언어활동을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음성분석기를 통하여 억양곡선을 시각화 시킨 후, 그 내용을 외국어 학습에 접목시켜 활용할 경우, 학습대상자의 수가 많을수록 학습효과와 질은 떨어지게 된다. 소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억양학습 지도를 하더라도 PitchWorks의 경우에 하나의 PC에 한 개의 Lock key를 장착하여 사용하게끔 연결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직접 작동하면서 학습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특히 대단위 강의실에서의 운영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PitchWorks 프로그램에 분석된 억양(피치)을 시각적 그림파일(BMP파일)로 만들어 학습자들의 개개인이 억양곡선의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나, 그림파일도 역시 고정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억양의 시각화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외국어억양 학습 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성분석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어 교육기관에서는 하나의 컴퓨터 강의실 전체 PC에 음성분석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음성학 분야에서는 억양 연구가 더욱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확고한 이론 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자들의 외국어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다양한 외국어학습 환경 및 억양에 대한 이론 정립 등 모든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서 올바른 외국어 억양학습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 REFERENCES

- 고도홍·정옥란 등 공편. 음성 및 언어 분석기기 활용법. 한국문화사;2001.  
 Carton F. *Introduction a la phonetique du francais*. Bordas. Paris:1974.  
 Guberina P. *Les Appareils Suvag et Suvag-Lingua*, *Revue de Phonetique appliquee*:1973. p.27-8, p.7-15.  
 Lepetit D. *Intonation francaise: Enseignement et apprentissage*, *Canadian Scholars' Press, Toronto*:1992.  
 Leon PR. *Phonetisme et prononciations du francais*, *Nathan Universite, Paris*:1992.  
 Martin P. *Les problemes de l'intonation: recherches et applications*, *Langue francaise* 1973;19:4-32.  
 Rossi M. *L'intonation, le systeme du francais: description et modelisation*, *Editions OPHRYS, Paris*:1999.